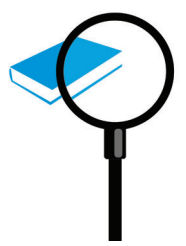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나무 없이 설명할 수 있을까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나무의 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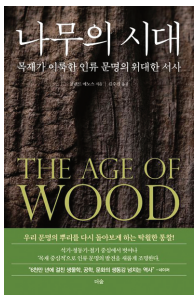
롤랜드 에노스 지음, 김수진 옮김

일반적으로 인류 역사를 분류할 때 석기, 청동기, 철기로 구분한다. 그러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문명의 발달 단계에서 인류가 간과한 것이 있다. 돌과 청동, 철이 놓친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목재'다.

영국 혈대학교 생물학과와 객원 교수인 롤랜드 에노스는 인류 역사에서 "목재는 분명 중심적인 재료"였다고 전제한다. 그에 따르면 목재는 인류의 진화, 문명 여정을 탄탄하게 해준 중심 소재다.

롤랜드 에노스는 왜 목재를 중요한 재료로 봤을까. 나무의 성장, 목재의 성질을 이해한다면 그의 주장이 상당히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는 목재의 물리적 성질, 이룰때면 가벼움과 질량 대비 철보다 단단한 특징을 든다. 조개서 가공할 수 있는 데다 구조물을 지탱하는 용도로도 쓸 수 있다. 그뿐인가. 도구로 쪼거나 정밀하게 다듬으면



이쑤시개와 같은 작은 도구로 전환이 된다.

롤랜드 에노스가 펴낸 '나무의 시대'는 문명의 근원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저작이다. '목재가 이룩한 인류 문명의 위대한 서사'라는 부제가 말해주듯 책은 우리가 관성적으로 사유하고 이야기했던 '석기-청동기-철기' 중심에서 벗어나 확장적인 사고와 폭넓은 시야를 갖게 한다.

책을 관통하는 중심 내용은 인류의 변역이 '우리가 나무와 맺고 있는 관계'에서 기인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나무 없이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에 답이 될 수 있는 내용들로 가득하다.

인류는 나무 위에서 생활하다 지면으로 내려오면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뤘다. 최상위 포식자가 되고 오늘의 문명을 이룩한 것은 나무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한 능력에서 비롯된 것이다. 목재에 불을 피워 짐승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었고 음식을 조리해 섭취할 수 있었다.

문명의 발달은 숲 개간, 선박 가공 등을 통해 급속도로 전개됐다. 가장 오래된 통나무배는 네덜란드 페세 인근에서 출토된 페세 카누로 알려져 있다. 방사성

탄소 측정 결과 BC 8200~7600년으로 밝혀졌다. 약 280센티미터에 지름 약 45센티미터의 소나무를 잘라서 만든 배다.

BC 4000년경에는 인류는 여러 부품으로 배를 만들었다. 덴마크 티브리트만에서는 길이 약 10미터, 넓이 66센티미터 통나무배가 발견된 바 있다. 또한 유럽에는 가족을 덧입힌 배, 통나무배를 이용해 먼거리까지 교역을 했다는 다양한 증거품들이 남아 있다.

나아가 나무는 인류 공동체 구현에 기여를 했던 핵심 재료다. 수레를 비롯해 마차 등 다양한 운송수단이 목재를 재료로 탄생했으며 낫, 호미, 곡괭이 등 다양한 농기구의 손잡이가 나무재질로 만들어졌다.

지붕을 받치는 구조물인 지붕 트러스(지붕틀)의 개발은 목조건축의 발전을 견인했다. 저자는 삼각형 지붕 트러스는 고대 로마의 공공건물 바실리카와 이를 토대로 지어진 초기 교회의 특징이라고 설명한다.

목재의 역할을 긍정적인 측면에만 논할 수는 없다. 나무로 만든 다양한 무기는 거대한 짐승들을 영원히 사라지게 했다. 메머드, 오랑우탄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살상무기의 관점에서도 나무는 인류에게 적잖은 피해를 끼쳤다. 백년전쟁을 이야기할 때 크레시와 아쟁쿠르 전투에서 영국이 프랑스에 승리를 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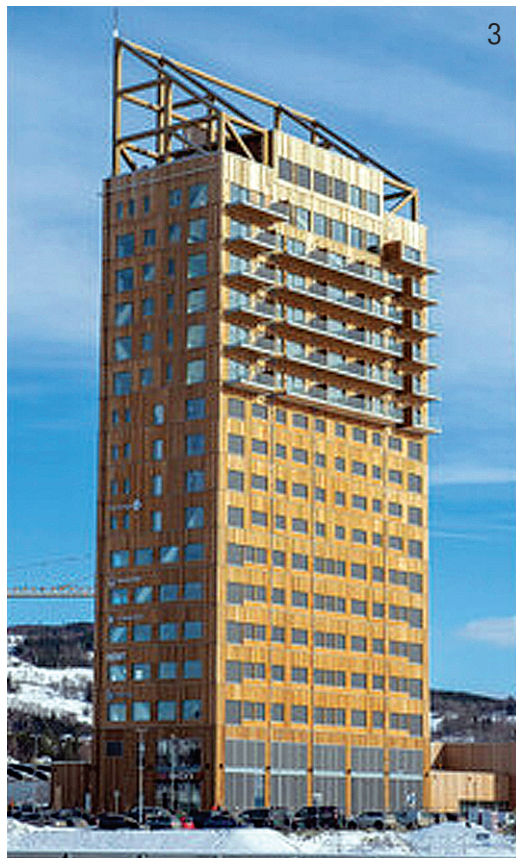


둔 것은 활 덕분이다. 목재로 만든 활은 15세기까지 살상 무기로서 맹위를 떨쳤다.

오늘날 삶에 사치를 더해주는 가구들은 상당 부분 나무에서 연유한다. 목재의 역사적 특징을 토대로 만든 악기들은 아름다운 음악을 선사한다.

책을 읽다보면 나무가 써내려간 문명의 장대한 서사와 그 사이에 교착된 삶의 이야기를 만나게 된다. 한편 네이처는 "6000만 년에 걸친 생물학, 공학, 문화의 생동감 넘치는 역사"라고 찬탄한다.

〈더쉬·3만2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1 1760년대 잉글랜드에서 제작된 원저체어.
2 이집트에서 복원된 4500년 전 배로, 파라오 장례를 위해 만들어졌다.
3 세계에서 가장 높은 목조건축물인 노르웨이 주 상북합건물 미에스토르네.

나는 으른입니다, 게으른

김보 글·그림

한때 '갓생 살기'가 MZ세대의 생활 방식이자 하나의 유행처럼 번졌다. 'God(신)+인생'의 합성어로, 이른 새벽에 기상해 운동을 하고 계획표를 빈틈없이 채우며 자기계발에 몰두하는 '생산적인 삶'이 찬양받았다. SNS에는 #갓생살기, #루틴공유 같은 해시태그가 넘쳐났고 성실함과 부지런함이 곧 '좋은 삶'의 기준처럼 여겨졌다.

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리고 꼭 그렇게 살아야만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닐 수도 있다.

김보가 쓰고 그린 '나는 으른입니다, 게으른'은 '갓생'의 압박 속에서도 자기 삶의 속도를 지키려는 '으른(어른)'의 솔직하고 유쾌한 자기 존중 에세이다. "게으르다고 해서 삶이 덜 가치있는 건 아니다"고 말하는 저자는 나만의 리듬으로 살아가는 것 역시 존중받아야 할 삶의 방식임을 위트있게 풀어낸다.

저자는 안정된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대기업에 그만두고 딱 1년만 자신의 게으름을 들여다보며 살아보자고 결심했고 게으름에 대한 신박한 고찰들을 '게으른툰'으로 그려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다.

책에는 에세이와 함께 그동안 연재해온 '게으른툰' 중 27편을 엄선해 담았다. 1장은 게으름을 '핑계'의 다양한 얼굴로 풀어냈고 2장에서는 게으름을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눠 객관적으로 들여다본다. 3장은 '갓생' 문화에 반기를 들며 나만의 속도와 느슨함을 회복할 것을 제안하고, 4장에서는 완벽한 어른이 되지 않아도 괜찮다며 '으른'으로 살아가는 자기 존중의 태도를 이야기한다.

주인공인 느긋하지 않은 나무늘보 '게으른', 방심하지 않는 토끼 '부지런', 핑크 방 어 슈트를 입은 닭 '핑계'까지 귀엽고 개성 넘치는 캐릭터들을 보는 재미도 더한다.



〈북라이프·1만7500원〉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머스크 리스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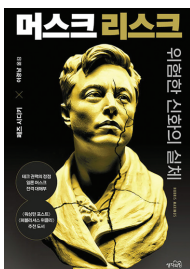
페즈 시디키 지음, 이경남 옮김

전기차에서 민간 우주 산업, 인공지능과 SNS까지. 일론 머스크는 한 세기의 기술 혁신을 혼자 이끌고 있는 듯한 인물이다. 테슬라의 전기차는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 산업을 뒤흔들었고, 스페이스X는 민간이 우주로 향하는 길을 열었다. 인공지능과 로켓,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그리고 트위터(현 X) 인수 등 그의 행보는 언제나 경이와 논란의 경계에 있다. 스티브 잡스 이후 '혁신의 아이콘'으로 불려온 그는 동시에 '가장 위험한 CEO'라는 평가를 함께 받는다.

워싱턴포스트 테크 전문가 페즈 시디키는 '머스크 리스크'에서 찬사와 논란의 양극단 사이에 선 머스크라는 현상을 해부한다. 그는 머스크의 급진적 행보를 단순한 천재의 일탈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시장과 정부, 노동과 기술의 경계를 허물며 작동하는 하나의 '리스크 시스템'으로 분석한다.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사고, 팬데믹 시기 공장 강행 재가동, 트위터의 대규모 해고와 정책 혼선 등은 한 개인의 기행이 아니라, 무제한으로 팽창한 권력이 낳은 구조적 위험의 징후로 제시된다.

책은 카리스마 리더가 만들어내는 신화의 착시를 짚어낸다. 테슬라의 성공은 정부 대출과 보조금, 규제 크레딧 판매에 크게 의존해왔지만 머스크는 동시에 '정부 간섭'을 비난하며 반(反)규제 담론의 기수로 자리했다. 그 모순의 진동 속에서 시장은 끊임 없이 요동쳤다.

책은 투자자들에게도 일종의 경고장을 보낸다. 머스크의 결정은 주가와 글로벌 공급망, 기술 패권의 흐름까지 흔들고 있다. 개인의 선택이 곧 시스템 전체의 리스크로 번지는 시대다. 저자는 "그가 권력을 어떻게 휘둘러왔는가를 살피는 것이 그가 어디로 향할지를 아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냉정한 거리두기를 권한다.



〈생각의힘·2만6000원〉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각의 도시

연여름 지음

물결 위에 누운 소녀의 얼굴은 고요하지만, 그 고요 속에는 이미 죽음의 예감이 스며 있다. 초록빛 강물 위로 흩어진 들꽃과 버드나무 가지, 물 위에 반쯤 잠긴 여인의 창백한 손끝은 생과 죽음, 순수와 절망이 맞닿는 경계를 보여준다. 시든 꽃잎이 떠다니는 물 위에서 오펜리야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는다. 존 에버렛 밀레이의 '오펜리야'는 햄릿의 비극적 연인을 가장 아름다운 순간에 가장 잔인한 장면으로 그려낸 작품이다.

연여름은 "오펜리야가 물속으로 가라앉지 않을 방법은 없었을까?"라는 질문에서 장편소설 '각의 도시'를 시작했다. 강물에 잠기기 직전의 오펜리야처럼 가라앉는 세계 속에서도 끝내 노래를 멈추지 않는 이들의 이야기다.

이야기의 배경은 지상과 지하, 그리고 '공중도시 라템'으로 나뉜 미래 사회다. 주인공 시진은 태어날 때부터 햇빛이 닿지 않는 그늘에서 살아온 기초수급자, 일명 '뱅크'다. 생존을 위해 친구 제레미와 함께 암석사막에서 흑각을 불법 채취하며 살아 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7년 전 행방불명된 누나 유진의 빈자리가 여전히 남아 있다. 누나는 머리 위로 빨이 돋는 '각인'이었다. 그 빨은 생명의 일부이자 낙인의 상징이다.

시진은 친구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계기로 공중과 지하, 그리고 '커터'들의 영역을 오가며 진실을 추적한다. 공중의 질서 아래 각인과 면역인은 서로를 구별짓는 존재로 살아간다. 공중은 각인의 빨을 자르고 세공하며 통제의 도구로 삼는다.

통제된 도시 속에서 잃어버린 인간의 존엄과 연대의 감각, 그리고 사라진 이들을 복원하는 서사는 지금의 현실에도 깊은 울림을 남긴다. 주권을 잃은 세계에서 살아남은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저자는 '우리가 끝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묻는다.



〈문학과지성사·1만8000원〉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그린 알로에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 ✓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 ✓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광고심의를 받은 광고를 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
■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